

군사정권시기 한국교회는 냉전·반공 내세우며 정권과 유착

■ 기획특집-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진단과 성찰 ② — 송오식 (광주기윤실 공동대표,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교회의 강단이 훼손되고, 세상이 교회를 '극우집단'으로 평가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는 처해있다. 광주기윤실 4월 세미나에서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발제한 '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진단과 성찰'이 오늘의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미션21이 4회에 걸쳐 기획특집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불편을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이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지형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는 자는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기 쉽다. 어느 한쪽의 전사가 되어 박수 받는 편안함 대신,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못하는 순례자의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곧 '자발적 불편'이다.

정작이란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신앙을 도구화하지 않는 '지적·영적 결백함'을 의미한다. 선한 목적(하나님 나라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면 수단(거짓선동, 조작, 협오 표현)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유혹을

▲ 현상 진단 :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의 그늘

(1)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정교 유착 관계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교회는 정권의 반공주의 노선을 적극 지지하며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우군 역할을 했다.
- 군사정권 시기 한국교회는 냉전 반공주의를 내세워 정권과 유착하고, 교권 다룸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 1966년 '대통령을 위한 국가조찬기도회'는 왜곡된 정교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유신 체제와 신군부 독재를 옹호하는데 이용되었다.
- 개발독재 이데올로기가 교회 내부에 침투하여 물량주의와 성장 지상주의 심화되었다.
- 민주화 이후 이익 집단화와 직접적인 정치 개입,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하거나,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등 정교 분리의 선을 넘는 행위가 빈번해짐. 이념적 결집, 교회 조직과 자금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 담론의 생

산과 유포 기지가 됨.

(2) 교회의 도구화 : 신앙의 언어가 특정 정당(정치적 이념)의 논리로 치환되는 현상

대표적인 예로서 자유와 공의라는 단어를 선택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편향화하는 경우이다.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를 특정 진영의 정책적 이익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서 성경의 자유를 오직 '반공'의 논리로 해석해 왔고, 진보 진영에서는 성경의 공의를 오직 경제적 평등이나 특정 계급의 이익으로만 국한한다. 예컨대, 종교인 파세나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할 때 이를 '종교 탄압'이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나 '공직 책임'의 가치는 등한시하는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3) 성도 양심의 자유 침해 : 목회자의 정치적 견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둔갑할 때의 위험성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행위가 빈번해짐. 이념적 결집, 교회 조직과 자금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 담론의 생

이라도 배치되거나(contrary to his Word), 혹은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에 덧붙여진(beside it) 인간들의 교리와 계명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

그러므로 그러한 계명들을 믿거나 양심을 거슬러 순종하는 것은 참된 양심의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목적인 신앙(implicit faith)과 절대적이고도

공적 신뢰를 잃고 갈등의 진원지로 기록받는 현상은 종교가 지닌 '도덕적 권위'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이다. 교회가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와 강력하게 결합하면서, 사회 통합의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한 축으로 변질된 점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 신학적·윤리적 성찰 : 우리

1966년 '대통령을 위한 국가조찬기도회' 유신·신군부독재 옹호 개발독재 이데올로기 교회 내부 침투, 물량·성장지상주의 심화

민주화 이후 이익집단화 직접 정치개입 정교분리 선 넘어

obedience)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이성(reason)을 아울러 파괴하는 것이다."

(4) 공적 신뢰의 추락 : 사회의 '빛과 소금'이 아닌 '갈등의 진원지'가 된 교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는 무엇을 놓쳤는가?

(1) 정치의 이상승배와 : 정치 이념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는가?

(2) 예언자적 목소리의 상실 : 권력과 유착하거나 특정 진영의 대변인이 된 것은 아닌가?

(3) 혐오와 배제의 논리 : '이웃 사랑'의 계명이 '진영 논리'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가?

(4) 기윤실 정신의 재발견 : 자발적 '불편'과 '정직'이 정치참여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나와 정치 지형이 같은 사람이나 집단에 속하여 있을 때 주는 '안락함'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정치 영역에서 걸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정치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지향한다. 내 집값이 오르거나 내 집단의 권익이 강화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해가 되거나 공의에 어긋나다면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정직함도 보신다는 확신 속에 정치에 임하는 태도이다.

▲ 대안 모색 : 건강한 그리스도인 시민(Christian Citizen)의 길

모든 정보를 유튜브로 접하는 시대에서 개인들이 '필터 버블'에 갇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본인의 취향이나 가치관에 맞는 정보만 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견해와 상반되는 정보를 접할 기회를 상실하며,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의견의 반복 강화로 인한 고립 현상인 '에코 챔버', 가치관이 편협해지거나 '확증 편향'이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자유롭지만 정치 참여의 목적은 건강한 참여를 통



해 이 땅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어야 한다.

(1) 공공신학적 관점 :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참여하기

가 권력이 아닌 공의와 사랑의 추구

세상의 방식은 힘의 논리에 따라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내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미수파트(Mishpat, 공의)와 체다카(Tzedakah, 정의/자비)의 실현에 우선순위를 둔다.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약자를 위한 정책 인가를 살펴야 한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나. 진영 논리를 넘어선 보편적 진리 추구

특정 정당의 승리를 목표로 삼는 대신 성경이 제시하는 '공적 가치' (인간의 존엄, 약자보호, 공의, 형평 등)를 정치 참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 진영과 유착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와 정치 권력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지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 가치(약자 보호, 정직 등)에 어긋날 때는 즉각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예배 시간의 설교나 광고가 특

정 후보나 정당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교회 내 '정치 참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중심의 '가치 필터링' 적용이 필요하다. 인물이나 정당의 색깔을 지우고, 오직 정책이 담고 있는 가치만을 분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은 보수적 가치가 성경적 근면성과 책임에 부합할 수 있고, 복지 정책은 진보적 가치가 성경적 긍휼과 공의에 부합할 수 있다. 각 사안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올라운드(All-round)' 일방적 지지를 지양해야 한다.

다.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의 정직성

세상의 정치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기도 하지만(모로 가도 서물만 가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결과만큼 과정에서의 거룩함을 중시한다. 정직한 비판과 토론,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비난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적인 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다.

라. 지배가 아닌 청지기 정신(Stewardship)

정치적 영향력을 '지배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거 때만 정치에 관심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정치화'가 필요하다.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권력이 아닌 '공의와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축물 유지보수 외부·외벽공사전문

옥외간판·십자가·외벽 유리청소·방수, 페인트

시외 장거리가능 / 건물가치와 수명연장

1톤·3톤·5톤 굴절스카이 전차중 임대 가능

경미한 공사 환영



건축물외부, 외벽공사
안전장비 고소작업 스카이라와
전문인력으로
고객님께 다가겠습니다.

그린 텍 손전화 010-3641-0675 김중운집사

허봉량 선교사 초청 성령부흥대성회

7월 8일(수)~10일(금)

허봉량 선교사

집회시간
저녁 7:30
오전 10:30

회장 임애숙 목사

- 사명자금식기도 영성훈련
- 세미나·수련회
- 원장수시 상담

축복힐링수양관

58147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죽현로51(모산리 1-3)
☎ 061)372-3935 H·P 010-3185-3933

↑한천면
←광주 외은 → 보성 →
↓남주면

오시는길
광주에서 218번 버스
수양관 앞 하차
별명연수원
한천휴양림 가는길